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9호 [루게 제24692호] 주제 103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 평양시민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수들을 연도에서 열광적으로 환영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찬 발걸음드높이 거창한 변혁이 창조되는 내 나라, 내 조국에 경사가 있다.

아시아와 세계체육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어머니조국은 축하의 꽃다발을 엮어 뜨겁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대미약의 기상을 파시하며 세인을 놀래운 우리 선수들의 쾌속이 온 나라를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세계의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언론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우리의 여자축구선수들은 조별리그경기에서의 연승에 이어 준결승경기에서 남조선팀을 2:1로,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3:1로 누르고 단연 제1위를 쟁취하였다.

력기, 탁구, 레스링, 체조, 사격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도 우리의 체육인들은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영예의 단상에 올랐다.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이 승리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체육중시사상의 생활력의 힘있는 파시로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정을 백배해주고 있다.

5일 승전의 개가놀이 돌아온 체육선수들을 환영하는 수도 평양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런몽둥이구로부터 룡흥거리, 개신문거리, 창전거리, 천리마거리 등에 이르는 수십리 연도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장한 아들딸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고



람홍색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을 듣고 달려나온 수십만 평양시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축판을 펼쳐놓으면서 필승의 신념과 완강한 투지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미더운 아들딸들을 열싸안을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 안아보자,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을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관대행무개차들을 선두로 하는 차행렬이 런몽둥이구에 들어섰다.

《축하》 등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환희의 꽃뭉들이 펼쳐졌다. 승리자들을 축하하는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우단원의 환영주악소리

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미더운 아들딸들을 열싸안을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애국에 넘친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들을 가슴마다에 한가득 안고 경기장을 누비는 그 나날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은 수도의 근로자들과 상공의 기쁨을 나누었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파어인 자욱을 새기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문으로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들어섰다.

제14차,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이같이 피어인 자욱을 새기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문으로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들어섰다.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장한 딸들의 경기성과가 너무도 대견하시어 그들을

천히 불러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영상은 그대로 승리의 표대였고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차행렬이 서성구역 근로자들로 가득찬 장산거리로 지나 룡흥거리로 들어서자 환영의 물결은 더욱 세차게 일어번졌다.

수많은 청년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두손을 높이 들어 꽃다발을 열정적으로 흔들고 어깨 덩실 춤도 추며 특출한 축구실력으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인 우리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금성거리입구의 영생탑을 우러르는 선수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체육인들을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파시한 개선장군들이라고 하시며 온갖 은정을 다 베풀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의 여자축구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으니 선수들과 군중들은 숨얼른 감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였다.

끝없이 물결치는 환영의 파도를 헤가르며 차행렬은 개선문으로 향하였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파어인 자욱을 새기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문으로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들어섰다.

3 면으로 계속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특기할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수들

### 평양 양도 착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떨친 경이적인 승전소식으로 온 나라의 경사를 안아온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자랑스럽고 미더운 체육선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겼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함께 왔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아시아의 45개 나라와 지역의 1만 4,500여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결전을 벌였다.

경기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세계인기들을 편이 수렴하며 높은 실력으로 전분야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 나라 선수들은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우리 여자선수들은 체육에서 상징종목인 축구경기에서 16개의 골을 넣고 세계여자선수권보유팀인 일본팀을 비롯한 맞닥든 모든 팀들을 물리침으로써 제1위를 쟁취하여 축구강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었다.

우리 선수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체육강국건설의 용대한 구상을 펼쳐시키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

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친 체육선수들과 일군들을 맞이하는 평양국제비행장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비행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비행장에 세워져있었다.

국기계양대에는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으며 비행장내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쓴 구호판이 세워져있었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심장의 피를 끓여 경기마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고 돌아오는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을 맞이하기 위해 체육인들과 선수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각계층 군중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자 군중들은 열렬히 환호하였다. 경기장마다에 휘날리던 공화국기들과 영예의 메달들을 지니고 비행장에서 내린 선수들은 자나깨나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기쁨으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온 세계가 다 아는 체육강자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정에 북받쳐 선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애동지, 김양진동지, 김영해동지, 최두철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량철성, 오금철,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들, 경기대회에 참가한 종목별회의 위원장들, 후원단체 책임일군들, 관제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과 근로자들, 가족들이 선수들에게 꽃뭉들을 걸어주고 꽃다

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선수들은 주체적인 체육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선철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품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체육강자들로 자라난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 《축하》, 《강하다》를 웨치는 군중의 환호소리가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쳐갔다.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체육선수들을 태운 버스행렬은 순안구역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 드높은 열기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 날을 따라 더욱 고조를 이루는 민족체육열풍

즐거움과 명망하며 용감한 우리 민족의 특성과 생활환경, 남다른 민족적정서와 취미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민족체육,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인민의 사랑을 받아온 씨름, 그네뛰기, 태권도, 바둑당기기와 같은 우리의 민족체육이 편이어서 전해진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승전소식과 함께 더욱 폭풍같은 열기를 띠고 진행되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이제부터 장식하고있다.

위대한 한 수 령길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별뿔기, 그네뛰기, 줄다리기같은 민족체육도 잘장려하는것이 민족적이다.》

지난 3일 모란봉청년공원에서 3차 도에서 올라온 그네뛰기 선수들간의 마지막결승기가 진행되고있다.

눈에 띄는 바둑당기 선수들, 한면 또 한면 선수들이 수구처럼 때려다 판승을 터뜨리며 목청껏 응원하는 관중들, 상대를 멀리 떨어놓기 위해 다음단계경전에서 더 높은 목표를 신장하는 감독들...

손으로 그네줄을 잡고 발을 구르며 온몸의 탄력으로 날아올라 하는 그네뛰기경기는 사실 전력소모가 많은 경기종류의 하나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그네뛰기는 민족놀이로부터 여성들의 몸단련을 위한 체육종류로까지 발전하였던것이다.

각기 경기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의 우승자, 전국적으로 제일 높이 하늘

을 나는 달란 너이니 과연 누구일것인가 하는데로 집중되었다. 평안남도, 자강도, 황해북도, 량강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 도선수들이 서로마다 승부를 다투던 끝에 드디어 함경북도의 김향미선수가 9m라는 최고높이에 도달하였다.

순간 모란봉은 북과 평리소리, 박수갈채속에 떠나갈듯 울려나와 김향미선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기쁨을 나누고있던 바로 그 시각 하나의 광경이 류달리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우승자에게 제일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다음이던 방금전까지 그네우에서 서로 경쟁하던 상대인 선수들이였던것이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 1등은 못하였지만 서로가 함께 부둥켜안고 축하해주면서 정감을 나누고 고무해주며 다음연경기에서도 만나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모란봉을 내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체육이 문예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야 어떻게 그렇듯 힘은 육체적훈련과정에 쌓은 자기의 기술과 경험을 손쉽게 경쟁자들에게 넘겨줄수 있으며 남의 우승을 두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일먼저 달려가 축하해주는 광경을 상상이나 해보겠는가.

민족의 고상한 미풍양속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화폭이야말로 서로 돕고 이끄는

생활과정에 창조된 고상하고 문명한 민족체육을 전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진행해나가는 대중체육으로 내세우고 적극 장려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볼수 있는것이였다.

남자들의 체력단련에 좋은 씨름 또한 평양체육관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서로가 맞잡고 힘을 겨루다가 도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약점을 틀어쥐고 통쾌하게 제압하는 장면들이 편이어서 펼쳐지는 씨름 경기장.

하루동안에만도 9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10여개의 팀이 출전하여 보통 수십차례의 경기를 치르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소년장수들이 출전하는 예기씨름경기였다. 그들중에는 맞다는 상대를 가볍게 이겨 평판중요 두가 혀를 차며 놀라와하는 몸무게가 100kg이나 된다는 합흥사에서 온 고금중학교 1학년 학생 김일선선수도 있었다.

심판원들도 예기씨름을 중시

하고 여기에 힘을 넣은 팀들의 성적이 특별히 높다고, 올해 경기를 지켜볼수록 확실히 지난해보다 모든 측면에서 한단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격정 넘쳐 이야기하였다.

승부가 결판날 때마다 이윽고 속을 죽이고 지켜보던 관중들이 터치는 탄성과 요란한 응원소리가 울려 퍼지는 평양체육관에서 흥분과 감동으로 가득 차서 흥분하여서도 힘차게 과시되고있었다.

우리는 청춘거리 태권도전장에서 동방의 강성국가였던 고구려시로부터 어른, 아이 할것없이 수박과 맥경, 남파람 등의 무술을 관람하는 우리 인민이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무술종목의 하나로 발전 풍부해진 태권도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나가고있는 모습을 한눈에 담고싶었다.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대인기를 끌고있는 이런 특색있는 민족체육종목들과 함께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10월 10일을 가까이하며 날을 따라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한경철  
사진 본사기자 리종석

평양시립과 함경남도립간의 청소년자축경기기를 보고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김일성경기장을 찾았다.

마침 그곳에서는 평양시립과 함경남도립간의 청소년자축경기기가 진행되고있는데 선수들은 고금중학교 1, 2학년학생들이였다.

축구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시립의 7번선수가 속도가 빠르고 1대 1 돌파능력과 문젯결속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반전 7분경 7번 리형정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팀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첫 득점을 하였다.

편이서 전반전 21분경과 32분경 리형정선수가 3도 특점하여 세골을 기록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많은 선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전반전에 선수교대를 2명 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와 평양시립은 더욱 맹렬한 공격을 진행하여 상대팀을 압박하였다. 7번과 11번의 2인결합에 의하여 평양시립의 11번 리은정선수가 후반전 13분경

우리 축구이름이 평양이 평양이 평양이다

4번째로 상대팀의 골문을 흔들었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후반전 23분경 7번 리형정선수가 또다시 강한 찬방기로 5번째 득점을 하였다.

후반전 26분경 반공격으로 나온 함경남도에서 비교적 좋은 위치에서 발차기를 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평양시립 문지기에게 아쉽게도 공을 안겨주고말았다.

후반전 28분경 구석차기한 공이 골문앞에서 맴돌 때 혼전속에서 평양시립의 14번 김경주선수가 찬방기를 하여 6번째 득점이 이루어졌다.

후반전 37분경 평양시립의 11번 리은정선수가 넘겨주었던 공을 7번 리형정선수가 또다시 머리발기로 득점하여 7: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를 기록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방어로부터 불의적인 역습공격을 많이 시도하였으나 끝내 득점을 이루지 못하였다.

축구경기가 끝난 후 후자서 5개의 골을 넣은 평양시립의 7번 리형정선수에 승리의 비결을 물으니 그는 팀이 한바늘 한뼉으로 단합되고 공격에 합세하는 10번 김은주, 11번 리은정, 18번 김계성동무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득점연락을 해주었기에 자기가 골을 넣을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난해 10월 10일 몸소 평양체육관에 나오셔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개회식에서 평양시립의 11번 리은정선수가 후반전 13분경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 아낌없는 절찬속에 진행되는 여자농구경기

관중들과 응원자들의 격렬한 환호소리가 그칠새없이 귀전을 두드리는 경기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청춘거리 농구경기판이다.

상대팀 선수들의 방어선을 뚫고 비호같이 몸을 빼어 앞으로 내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팀 선수에게 공을 던져주거나 또 다시 받아서 멋진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이 볼만 하였지만 상대팀이 방화할 사이도 없이 3점짜리 던져넣기를 편숙 들이대는 함경북도립과 강원도립의 여자농구 경기모습은 그야말로 훌륭하여 폭풍같은 박수갈채와 응원소리가

온 경기판을 진전시키고있었다. 속도경기의 특성에 맞게 너무도 빠르고 박력있게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관중들이 잠시도 헛 눈발새없이 손에 땀을 쥐고 온 정신을 경기에 쏟아부어가고 있는 치열한 여자농구경기.

고급한 기술과 기묘한 전법들을 정황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해나가며 경기장바닥을 종횡무진로 누벼나가는 이들을 과연 누가 녀성들이라 부를지, 녀성사무원들이라고 섣뜻 믿을수 있었는가.

하지만 이들도 남들과 똑같이

이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 시격선수로 참가한 자강도당위원회 부장 한영승은 이렇게 말하였다.

《온 나라의 체육열풍을 대변 한 힘이 느껴지고 또 경기장들마다에서 그 지역이 실지로 발휘되는 굉장한 체육축전이다. 비약하는 조국의 약동하는 숨결, 미래를 향해 나서는 세찬 퍼덕임소리가 막 울려오듯했다.》

이런 크나큰 활력과 신심을 안겨주는 대중체육활동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여주시는 김정은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싶다.

나는 위대한 선군시대, 격동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 신심과 활력을 안겨주는 대중체육열의

하는 시대에 사는 당일군의 한사람으로서 할부수운출 모르고 우리의 신성한 강성국가건설 위업에 감히 도전해나서려는 계급적원수의 심정에 쓰여박는 친신 대동강초급중학교 소년단 지도원이었다. 상대팀의 오픈타격을 막기도 하고 날렵한 스퀴를 득점을 하는 다른 팀 선수는 안주처럼 인공장 로동자이다. 선수들의 직무는 각이하지만 우리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한바늘 한뼉으로 굳게 뭉쳐서, 두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수시로 변하는 정황에 맞게 팀을 이끌

판 사서도 있고 숙원군의 3대 혁명소전도 있는데 이들은 팀의 믿음직한 주력선수들이다. 기본조직자는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부원이고 보조조직자는 덕천시 대동강초급중학교 소년단 지도원이었다. 상대팀의 오픈타격을 막기도 하고 날렵한 스퀴를 득점을 하는 다른 팀 선수는 안주처럼 인공장 로동자이다. 선수들의 직무는 각이하지만 우리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한바늘 한뼉으로 굳게 뭉쳐서, 두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수시로 변하는 정황에 맞게 팀을 이끌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 번개같이 주로를 달리는 선수들

인민야외빙상장에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로라스트레트경기가 진행될 때 유묘하게 붉은색운동복을 입고 번개같이 주로를 달리는 선수들이 있었다. 알고보면 그들은 강원도 원산시 갈마초학교의 나이던 선수들이었다. 어떻게 되어 선수들이 그렇게 손살같이 달릴수 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갈마초학교 교원 현연용동무는 강원도 당위원회에서 경기준비사업을 하나부터 열까지 맡아주어 선수들이 《번개》가 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로라스트레트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을 위해 도의 일꾼들이 매우 일요일마다 직접 초시계를 들고 훈련장에 나와 기록측정을 하며 선수들을 고무해준 이야기, 경기용기제도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해주고 원산에서 평양으로 떠날 때에는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하고 돌아오라고 연도할까지 조직해준 이야기...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후련열의가 대단했다. 고개를 두덕이던 우리는 한차례의 경기를

플랜 선수들을 고무해주던 강원도당위원회 부부장 박도용동무의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단안의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훈련을 이악하게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킨 우리 선수들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강원도립 선수들이 나이는 어려도 그렇듯 이악하게 훈련했으니 어찌 주로에서 번개같이 내달리겠는가.

본사기자

이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 시격선수로 참가한 자강도당위원회 부장 한영승은 이렇게 말하였다.

《온 나라의 체육열풍을 대변 한 힘이 느껴지고 또 경기장들마다에서 그 지역이 실지로 발휘되는 굉장한 체육축전이다. 비약하는 조국의 약동하는 숨결, 미래를 향해 나서는 세찬 퍼덕임소리가 막 울려오듯했다.》

이런 크나큰 활력과 신심을 안겨주는 대중체육활동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여주시는 김정은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싶다.

나는 위대한 선군시대, 격동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 집단적혁신으로 비약의 나라를 활짝 폈다

평양블록공장 부재생산직장 부문당위원회 사업에서

적이며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통이 크면서도 실속있게 세울수 없었다.

결의목표를 보다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동원할수있도록 되게 하면서 직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결의목표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부문당위원회는 다음날 종업원들의 모임을 열고 모두가 결의목표를 반영할 내용을 한두가지씩 제기하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이렇게 되니 종업원들모두가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결의목표를 내놓고 나서 내놓게 되었는데 그 안은 무려 백수십가지가 되었다.

성형 1 작업반과 성형 2 작업반의 천정기계수정공들인 림강희, 리영희동무들은 기공기의 단가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피대, 베이핑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목표를 내세웠고 용접수리 작업반 반장 진봉환, 진공 박테공동무들은 혼합공정을 압축공기과파장치를 받아들여 작업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를 제기하였으니 혼합작업반의 초급일꾼들이 최수영, 리영일동무들과 계량공기수정, 리영일동무들과 계량공기수정동무들은 혼합공정의 확보와 현대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대단하고 통이 큰 착상들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부문당위원회는 종업원들이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한 체육기술을 발휘할 때마다 저 선수들속에 남다른 내세우고싶고 나지 않는 선수로 출현하고있다. 아들도 어서빨리 커서 저 경기장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으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 은 가족이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은것은 나 하나만의 심정이 아니다. 응원단원들 누구나 체육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나서고싶어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 남포시 인민들모두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 경기장에 체육선수로 나서고싶은 심정일것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백성근



